



#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11월 6일(화)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6천여명의 농업경영인과 농민, 시민들은, 유력 대선주자 6명이 발표하는 농업관 강연과 농정공약 하나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가 주최한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한-미 FTA 피해 대책 마련, 농가부채 해결,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혁,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법제화 및 쌀값 보장,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농산어촌 100만개 일자리 창출, 농정주진체계 혁신 등 다양한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등 총 6명의 후보자들이 참여하여, 11월 7일 출마를 공식 발표한 이회창 후보를 제외하

고 2007년 대선 정국 들어 최초로 모든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모인 것이다.

## 농민단체 대표자 대거 참석

토론회는 한농연 회원들뿐만 아니라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 엄성호 농단협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농민대통령을 뽑겠다는 열기로 가득했다. 특히 1부 결의대회 행사에서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350만 농민 총 단결로 농민대통령 뽑아보자”며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또한 농민 대통령을 뽑자는 농민들의 소망은 곳곳에서 표출되었다. 행사장 곳곳에 붙은 현수막에는 ‘농업을 아는 후보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올바른 농정 방향 설정을 위한 한농연의 선택’ 등 한농연이 농민 대통령을 스스로 뽑고 싶다는 염원을 표현하였다. 새벽길을 달려왔다는 한농연 회원 및 농민은 “우리 농업을 살려내는 참 대통령



을 우리 손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 후보들 공약에 대해서는 ‘기대반 우려반’

전국의 농업경영인들은 새벽밥을 먹고 출발,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 전부터 자리를 가득 메웠다. 각 당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 연설을 통해 농업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표했으며 각종 농정공약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토론회장을 찾은 농민들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 후 농업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때, 이번에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농연 회원들은 “대선후보들이 연설에서는 농업이 어렵다고 표현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말했다”면서 “그런 공약들이 당선 후에도 반드시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또 다른 회원은 “후보들이 농정 공약을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제일 앞자리에 앉기 위해 서둘렀다”면서 “이러한 농업인들의 열정에 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혔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면 톱기사 게재 등 언론들 적극적인 보도에 나서

한편 본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6인의 대선후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초유의 행사인 만큼, KBS, MBC, SBS, YTN 등의 방송사와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통신사, 각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는 물론 전 세계 유명 방송 및 신문사까지 합세해 열린 취재경쟁이 벌어졌다.

특히 동아일보가 11월 7일자 1면 톱기사로 본 연합회 주최 토론회의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KBS1 TV 등 방송3사는 당일 오전 6시 첫 뉴스부터 8시 및 9시 메인뉴스를 통해 6인의 대선 후보들이 농심 잡기에 나섰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언론사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가 이어졌다.